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박*선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Hawaii – Honolulu
파견대학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파견기간	2014.08.15 ~ 2015.05.15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제가 다녀온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는 미국 하와이주 중 Ohau라는 섬, Honolulu 도시에 위치해있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훨씬 넓으며 Dole street를 경계로 Upper campus 와 Lower campus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캠퍼스는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 위치해있어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학교 내 건물들 층은 보통 2~5층으로 고층건물이 없으며 상아색의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교내에는 풀밭과 나무들, 그리고 잠시 앉아 바람을 쐬 수 있는 작은 벤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도 건물이지만 한국과 달리 서두르고 뛰어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매우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이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p>
2014-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Internship 1 (관경) -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강의 마다 관광업계 종사자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유익한 강연을 해주십니다. 그 외에는 인터뷰나 인턴쉽 할 때의 예의, 옷차림, 주의해야 할 점들을 배우는 수업이라 어려운 수업이 아닌 유익하며 가볍고 괜찮은 수업을 원하신다면 이 수업을 추천합니다. - <p>Intermediate Academic Writing (ELI) –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플100점 이하의 학생인 경우 ELI 배치고사를 친 뒤 각자 그리고 각 영역별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주거나 딱히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의 경우엔 학

	<p>생의 선택에 맡깁니다. 저는 중급 Writing 수업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지루하고 토론 중심의 수업이 꽤나 있어서 괜찮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p> <p>Fundamentals of Entrepreneurship – 비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은 중간고사로 딱 한번 쳤으며 기말은 다른 창업관련 과제로 대체했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경영학개론과 수업 매칭이 된다고 해서 들었던 과목인데 경영학개론의 내용도 섞여있었지만 창업이 더 주된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창업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없었던 터라 지루했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별과제가 자주 있어서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p>2015-1학기 수업</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Global Mgt & Organizational Behavior (경영) –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수업의 교수님은 네팔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억양이 인도와 네팔억양이 꽤 강해 저희가 배우고 들어오던 미국식 영어발음과는 달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 친구를 서로 칭찬하기 그리고 웃기 운동을 매 수업 시작할 때마다 다같이 하심으로써 밝고 활기찬 수업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매우 긍정적인 분 이십니다. 수업이 끝나면 10분간 명상을 다같이 하며 그냥 이론적인 관점의 조직행동론 보다는 경영학에 있어서 관련된 심리적인 요소들도 많이 가르쳐주십니다. <p>Hotel/Resort Facilities & Design (관광)-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수업의 교수님은 옛날.. 학부생 당시 건축학과를 전공하셨던 분으로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설명해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수업 스타일은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관광경영 수업을 듣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나중에는 비중이 큰 다소 요구하는 것이 꽤나 많은 조별과제가 하나 있는데 직접 호텔을 하나부터 열까지 디자인하고 건축프로그램을 통해 설계도/도면도까지 만들었던 것이 제게는 매우 흥미로웠고 기억에 남아서 추천하고 싶은 전공 과목입니다. <p>The Natural Environment –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자연 지리를 원체 좋아해서 교양과목으로 저학년 지리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지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하실 게 분명하고 과제가 하나도 없고 출석체크도 전혀 하지 않아서

	<p>재미있기도 하고 매우 편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두 분으로 나뉘서 수업을 진행하셨었는데 첫 번째 교수님이 매우 열정적으로 명확하고 쉽게 웃으시면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셔서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만 시험이 총 4번으로 각각 25%의 비중, 총 100%로 성적이 모두 4번의 시험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객관식이며 조금의 정의서술과 주관식인 시험이라 그리 어렵지만은 않아 지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듣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비싼 책은 안 사셔도 수업 중 자료 ppt 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오리엔테이션 후에 pizza party, 학교 부근 bar에서 진행되는 welcome party 같은 행사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연락처도 서로 나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교환학생들과 현지학생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ISA라는 클럽도 있으며 Upper campus내 학교 중앙에 위치한 학생회관에서는 교환학생 담당자 선생님 분의 사무실도 있고 시간만 미리 잡는다면 궁금한 점이나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부서들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친히 설명을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8월~10월 달 까지는 매우 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날씨는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건조하며 정말 가끔 빼고는 항상 맑고 화창하며 햇볕이 매우 강하게 내리쬡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강한 자외선 차단제를 파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많은 친구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밖을 다닙니다. 하지만 나무아래 그늘에 잠시만 서있어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 한국처럼 폭폭 찌는 더위의 여름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겨울 날씨에는 춥기보다는 전보다 쌀쌀해져 한국 가을 시즌에 입는 긴 팔과 긴 바지 정도면 추울 일 없이 겨울을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도 우기에 중간중간 이슬비처럼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하와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일날 뻔했다던가 무서웠던 경험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늦은 밤 캠퍼스 어두운 곳에서 강간사건이 꽤나 빈번해 조심해야 한다는 얘길 학교측에서도 외국인 친구들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밤늦게는 될 수 있으면 차를 타지 않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여럿이서 무리 지어 다니세요 어두워지면!</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0)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2학기 모두 YMCA라는 외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보통의 기숙사와 같이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외부인을 부를 시에는 외부인의 친구이름과 호실을 리스트에 작성하고 외부인의 신분증을 있는 동안 제출하며, 11시 이후에는 외부인 출입 불가입니다. 또한 술도 기숙사내 반입금지입니다. 하지만 일층엔 공동부엌과 study room, 당구대 그리고 탁구table도 있어 기숙사 사는 친구들과 쉽게 친해져 재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학교의 여러 기숙사 중 가장 저렴한 곳의 meal plan을 제외한 가격이란 비슷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경영과 상경대 건물이 이 기숙사와 2분 거리로 매우 가까워서 이곳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귀찮을 땐 food truck에서 음식을 사먹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땐 외부식당에서 사먹었으며 중간중간 한국음식이 먹고프거나 돈이 별로 없을 때는 식 자재를 사다가 직접 요리해 먹었습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제가 지낸 기숙사가 학교 바로 맞은 편에 있어서 도보로 2~3분 걸려서 통학하였습니다. 버스노선은 매우 많으며 UHM 학교 학생증을 발급 받으시면 버스 탈 때 버스기사님께 보여드리면 버스요금을 따로 낼 필요 없이 그냥 타실 수 있습니다. 주요도시 이동할 때 버스로 이동 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통 친구들 차를 얻어 타서 다니곤 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로 갈 때: 85만원. (일본 경유) 편도로 올 때: 110 만원 (직항)	왕복사세요.
Fees	저희는 학교에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국내 해외 여행자 보험:	학교 보험이 매우 비싸 국내보험으로 대체했습니다. 대체하는 서류작성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영문 certificate 와 서명을 받고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숙소	YMCA - 한 학기에 약 3000\$.	
식비	많이	
교통비	버스- 무료 택시- 가끔 이용	
책값	한 학기에 100\$ 내외	책을 Rent 하거나 E-book 이용, international version의 textbook 구매.
여행	Big Island (3박 4일)- 약 1000\$ LA, LV, Grand canyon (10일)- 약 1200\$	
합계	약 27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Walmart에 가서 유심 칩을 사서 무제한 플랜을 사용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T-mobile에 4명 5명? 이상이 모이면 family plan이라는 거의 25\$에 모든 것이 무제한인 매우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다만 이 플랜에 가입을 할 때엔 미국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number가 필요해서 저희는 그 당시 친해진 아는 Korean American 오빠에게 부탁을 해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 입장에선 살짝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이것을 부탁할 미국친구가 있으며 함께 요금제에 가입 할 친구들도 있다면 이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의 학교는 한국처럼 정해진 날짜, 시간에 요이땅해서 수강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그 수업의 전공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을 일일이 보내서 허락을 해주셔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는 pre-requisite이란 제도가 존재해서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수업을 들을 시에는 전에 특정 수업들을 이수했어야만 그 수업의 수강 신청을 허락해줍니다. 먼저 사전에 영문 성적표 파일을 준비해놓고 수강신청 문의 메일에 필수조건 수업들을 home university에서 들었었다고 정확히 밝히면서 성적표 파일을 첨부하시는 것이 나중에 번거롭지 않고 단번에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명확히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엔 파일을 첨부해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며 “당신은 pre-requisite class를 듣지 않아 자격요건이 안 된다” 는 메일을 받아 며칠 뒤에도 수강신청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 점 기억하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다른 생각, 가치관, 성격을 지닌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접하고 친해지면서 좁은 관점에서 바라 보고 생각하며 저건 이상하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받아 들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먼저 다가가고 친해지려 노력하면서 사람을 접하는 것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낯을 가리던 좋지 않던 성격도 거의 사라졌으며, 성격도 전반적으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항상 아프던 배도 하와이에 온 이후로는 그 증상이 사라졌으며 날씨도 따뜻하고 좋아서 인지 체력도 좋아져 제 자신이 이렇게나 항상 기운차고 많이 웃을 수도 있구나 하고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 진짜 성격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알게 되었으며 교환학생을 가기 전보다 밝아 졌으며 자신감, 독립심도 좀 생기고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뚜렷해졌습니다. 돌아온 후에도 더욱더 영어공부를 많이 해서 미국에서 관광 업계로 취직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현재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게 있어서 교환학생 생활의 2학기는 영어 공부이상의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잊지 못 할 시간이었고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서쪽 하이킹 중</p>	<p>학교 건물</p>
	
<p>Las Vegas 여행 중</p>	<p>Big Island 여행 중</p>
	
<p>탄탈러스 (야경 보는 곳)</p>	<p>UHM팀 vs 다른대학팀 배구경기</p>